



- 왼쪽부터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지식공작소, 1993), 이규형의 『일본을 알고싶다!』(사무라이 쇼크/햇빛출판사, 1994), 김지룡의 『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명진출판, 1998).

원서들

# 거부에서 수용으로 90년대 대중적 일본문화론의 특성과 변화

—  
강태웅

\* **지은이 | 강태웅**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히토쓰바시대학 사회학연구과에서 석사학위를,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 표상문화론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문화사, 일본영상문화론, 동아시아 영상문화 교류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제국의 교차로에서 탈제국을 꿈꾸다』(공저), 『세계 박람회와 지역문화』(공저),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편저), 『제국의 지리학, 만주리는 경계』(공저),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공저) 등이 있다. 현재 광운대학교 일본학과에 재직 중이다.

## 1. 들어가며

이 글은 『일본은 없다』로 대표되는 1990년대 한국의 대중적 일본문화론 서적을 통해서 한국인의 일본인식을 읽어 내려는 시도이다. 당시 한국은 여행자유화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민간교류가 많지 않았고, 일본대중문화는 금지되어 있었으며, 인터넷도 보급되기 전이어서, 일본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기 힘든 나라였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은 있다 없다, 일본문화는 재미있다 없다 등의, 일본에 체재하면서 느낀 점을 통하여 일본문화 전반을 재단하는 책들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책들은 짤막짤막한 에피소드 묶음이라는 형식면에서 공통되었고, 심도 있는 분석보다는 인상비평적으로 서술한 내용면에서도 닮았다. 또한 일본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혹자는 “일부 사이버 평론가들에 의한 불량 일본대중문화론”이라고 칭하며 문제 삼기도 하였다.<sup>1)</sup>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일본문화론을 펼친 대중서들이 1990년대에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열광적으로 소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그러한 대중적 일본문화론들의 ‘잘못된’ 일본인식을 다시금 밝혀내고 논지를 반박하기보다는, 이러한 저작들을 통해서 당시 대중이 갖고 있던 일본 이미지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당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 이규형의 『일본을 알고 싶다』, 김지룡의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 세 권을 임의로 선정하여 발간 순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겠다.

## 2. 일본에 대한 르상티망: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

『일본은 없다』(지식공작소, 1993년)는 1990년대 대중적 일본문화론 붐을 불러일으킨 책으로, 지금은 정치인으로 활동 중인 전여옥이 KBS에 몸담았던 시절, 일본

1) 김필동, 「김지룡 이규형은 '평론가'의 탈을 벗어라」, 『월간 말』, 2000년 1월, 204쪽.

에서 2년 반 동안 체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일본이란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국민도 모두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2년 반이란 시간을 보낸 지금은 절대로 일본을 배워서도, 일본처럼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결론”(17쪽)을 내리고 시작하는 『일본은 없다』는 일본과 일본인이 ‘비정상’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례들로 엮여진다.

전여옥은 먼저 일본의 여성에 초점을 맞춘다. 「줄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밀도 끝도 없이 “일본 여자들, 참 못생겼구나”라고 단정 짓고(20쪽), 다음으로 이탈리아에 여행 갔다가 성폭행당한 일본 여대생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여성들은 “해외여행을 하면 부나비처럼 외국 남성들에게 뛰어”든다고 말한다(23쪽). 선정적이면서 여성 비하적인 이러한 표현은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수위가 높아진다. “굳이 서양사회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보석을 받는 여자는 창녀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면서, 무엇을 근거로 한 정설인지는 밝히지 않고 남자 친구로부터 보석 선물을 받는 일본 여성들의 행위를 비난한다(30쪽). 또한 “여성은 언제나 남성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문화가, 일본 여성들을 쉽게 아무런 정신적 갈등이나 주저 없이 술집에 나왔게 했다”고 하고(39쪽), 일본 여성처럼 “많은 일을 하고도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여(49쪽), 자기 몸을 추스르지도 못하는 가련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일본 여성을 그려낸다.

이처럼 전여옥은 일본을 여성으로 표상함과 동시에, 어린아이로도 표현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그다지 없는 일본인은 “자폐증에 걸린 어린아이와 같다”고 진단된다(155쪽). 맛있는 요리를 찾아다니는 일본의 ‘구루메 붐’도 저자에게는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국민학교 어린이처럼” 보일 뿐이다(205쪽). 결국 『일본은 없다』는 일본을 나약하고 가련한 여성 또는 성장을 끝내지 못한 어린아이로 표상함으로써, 한국 독자들에게 일본인과 다르다는 면에서 안도감을 주고, 인생의 어른으로서 그들을 내려다보게 만들어 우월감을 느끼게 만든다. 전여옥은 한국이 따라잡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경제대국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못생기고’ ‘가볍고’ ‘가련하고’ ‘병든’ 모습으로 바꾸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전여옥의 글은 단호하다. 어떠한 주저함도 없고 거리낌도 없다. 저자에게서 왜 일본은 다른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기대할 수 없다. 박유하의 표현을 빌리면, 전여옥에게는 일본이 한국과 “다른 것은 죄악”이다.<sup>2)</sup> 일본의 경제성장도 “운이 좋아 졸부”가 되었을 뿐이다(77쪽). 일본의 텔레비전은 대부분 엽기적인 살인을 다루는 드라마가 많고, 이는 “잔인하고 끔직한 장면을 미화시키고 좋아하는 민족성” 때문이라고 그녀는 딱 잘라 말한다(246쪽). 일본의 전통문화인 가부키도 여성 역할을 남성이 연기하는 “변태의 미”일 뿐이고(260쪽), 중국의 경극(京劇)이나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당시의 영국에 대한 비교는 이 책에서 상상할 수 없다. 저자는 한국과 일본만을 비교선상에 놓고, 한국과 다른 것이 일본에 있으면 이를 ‘비정상’으로 판결할 뿐이다. 이에 반해 한국적인 것은 한없이 긍정된다. 일본인들의 서비스는 철저하고 완벽하지만 비인간적이고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고 비난하고, 한국은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면 더 주는 ‘정의 나라’로 규정된다. 손님의 신발을 나가기 편한 쪽으로 정리하는 일본의 관습은 “필요 없는 행동”이고 “제 멋대로 하는 과격이 주는 통쾌한 자유”를 모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160쪽). 이러한 저자의 주장을 뒤집어 보면 한국은 ‘과격이 주는 통쾌한 자유’를 즐기기 위해 신발을 정리하는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는 셈이다. 저자는 일본을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물질만능주의적인 사회로 판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판단에는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복잡한 설명을 동반치 않는 단순하고 단호한 서술과 한국 긍정은 책을 읽는 한국의 독자를 당당하게 만든다.

이상과 같이 전여옥은 『일본은 없다』에서 한국에 없거나, 한국과 다른 일본 문화를 찾아내어 일본은 ‘비정상적’이라고 비난함으로써, 한국의 독자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일본은 실체가 없는 가구(假構)에 불과했음을 드러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밝혀진 일본의 모습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허구와 실상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이 책은 이성적이고 체계적이기

2) 박유하,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 사회평론, 2000, 60~61쪽.

보다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이고 타자에 대한 거부를 숨김없이 나타낸다. 이러한 ‘일본은 없다’ 식의 일본론은 당시의 독자들에게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지만, “실체 없는 자부심” 충족에 가까웠다.<sup>3)</sup> 다르게 표현하면 타자를 이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자문화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앞선 논의였고, 오히려 이를 통해 “자국 문화의 공백”이 드러나기도 하였다.<sup>4)</sup> 즉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제 규모의 차이와 사회발전의 시간차로 인하여 1990년대 한국에 아직 없었던 것들도 전여옥은 일본을 ‘비정상적’이라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구루메 붐이나 명품 브랜드 소비의 확대, 철저해진 서비스, 황혼 이혼의 급증 등 전여옥이 말했던 일본에만 있는 ‘비정상적’ 일들이 현재 한국에서 일상이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전여옥의 시각은 ‘도시사람들은 돈만 알고 매정해’라는 시골과 도시의 전형적인 대립구도와 닮아 있다. 1990년대 초반 경제대국 일본을 바라보던 한국인의, 부러움 섞인 질투로서의 르상티망(ressentiment)이 『일본은 없다』에 숨김없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 3. 일본에서 욕망 읽어내기: 이규형의 『일본을 알고 싶다』

1980년대 말 흥행감독이었던 이규형은 영화제작을 중단하고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 체재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문화 관련 서적을 펴내었다. 『일본은 없다』가 나온 지 몇 달 뒤 이규형은 『일본을 알고 싶다: 사무라이 쇼크』(햇빛출판사, 1994년)를 발표한다. 흥미롭게도 전여옥이 일본의 여성이야기로 책을 시작한 것에 반하여, 이규형은 일본 남성애 초점을 맞춘다. 첫 페이지가 야쿠자 조직 보스와 옷통을 벗어젖힌 문신한 청년들의 사진이고, 첫번째 소제목은 「사무라이의 상징 야쿠자」로 야쿠자 조직 간의 항쟁이 소개되고 있다. 그 다음은 ‘현대판 사무라이’로 일본의 우익이 등장하고, ‘사무라이 스포츠’로 스모 선수 이야기가 이어지

3) 김용덕, 「체험적 일본비판론」, 『창작과 비평』, 1994년 가을호(통권 85호), 392쪽.

4) 장인성,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자기 해방」, 『국제문제연구』 22호, 1998, 86쪽.

는 식으로, 마초적인 일본 남성들로 책의 전반부가 장식된다. 이규형의 책에서 그려지는 일본의 젊은 여성은 “거의 100퍼센트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표현되어(308쪽), 일본의 여성들이 가련하고 사회적 약자에 불과했던 전여옥의 책과는 사뭇 다르다.

그렇다고 일본을 보는 이규형의 시각이 전여옥과 다르지는 않다. 이규형은 일본인 성인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녀석들’, ‘아이들’, ‘일본 남자애들’, ‘일본 여자애들’과 같은 어린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일본인을 성장을 끝내지 못한 어린 아이로 표상하는 점도 전여옥과 같다. 이규형은 더 나아가 일본인들에게 ‘짹X’와 같은 욕설을 쓰에도 주저함이 없다. 또한 일본은 “금전이 정신을 지배하는 사회”이고(257쪽),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는 동안 일본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정신이 죽어 버렸다”(307쪽)고 치부하는 점도 전여옥과 마찬가지로 지다. 그는 일본의 모든 행동패턴을 경제활동과 결부시킨다. 일본인이 만화를 많이 읽는 것도 그것이 가장 값싼 레저이기 때문이고, 근로의욕을 되찾기 위한 행위일 뿐이다. 누드사진집이 유행하는 것도 돈이 된다면 어떤 분야든지 놓치지 않는 일본인의 경제관념에 의한 것이다. 당시 한국에는 거의 없었던 편의점을 보고는 “24시간 내내 장사 이윤을 남기겠다는” “무서운 상혼(商魂)”을 느낀다(105쪽). 이처럼 ‘경제동물’(economic animal)로서의 일본인을 부각시키는 점과, 사례비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애프터 서비스맨에게서 ‘한국식 정’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한국은 ‘정의 나라’, 일본은 ‘비정한 나라’로 구분하는 점도 전여옥과 공통된다.

기본적으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규형과 전여옥이 그다지 다르지 않지만, 『일본을 알고 싶다』가 『일본은 없다』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일본을 알고자 하는 한국인의 욕구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시작이 야쿠자이고 우익인 것이다. 그 다음은 스모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가장 유명한 스모 선수와 사귀던 여자 연예인의 누드 사진집 이야기가 튀어 나온다. 그리고 일본의 “스포츠 신문은 섹스 신문”이고(164쪽), 연예인을 괴롭히는 “비인간적인 줄 알면서도 즐기는” 몰래카메라가 유행하고(188

쪽), “섹스도 섹스지만 폭력 쪽으로 얘기하면 일본 드라마는 가히 한국 쪽이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221쪽), “성의 스트레스를 발산시켜 줄 수 있는 심야 방송”이 존재한다는 등(234쪽),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일본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선정적 표현이 가득하다. 일본대중문화도 수입금지되었고, 여행자유화가 된 지도 얼마 안 되었을 뿐더러, 인터넷도 없던 1990년대 초반의 한국 독자에게는 이러한 예들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컸다. 그의 이러한 서술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저질’이라고 일본문화를 비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욕망이 제어 없이 배출되고 있는 곳이라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에 갖는 ‘환상’을 잘 이용한 것이다.

이규형은 독자들이 갖는 일본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을 자신의 다음 저서에서 이용한다. ‘경제동물’적인 일본에 대한 관심에서 이규형은 『일본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가서원, 1996년)를 쓴다. 그는 이 책에서 당시에 일본에서 성행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없는 사업을 소개한다. 그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서 그러한 사업이 한국에 없다고 할 뿐, 한일간의 사회적 문화적인 차이를 무시한다. 하지만 이 책 또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환상’을 좇는 투자여행단까지 조직되기도 하였다.

#### 4. 발상의 전환과 독자의 변화: 김지룡의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

1998년 일본대중문화개방을 앞두고 김지룡의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 일본대중문화비평가 김지룡의 일본 문화 제대로 읽기』(명진출판, 1998년)가 출간된다. 게이오 대학 유학생이었던 그는 전여옥, 이규형과 마찬가지로 유학생생활 중의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

김지룡은 전여옥, 이규형과는 다른 시각으로 일본문화를 접근한다. 그는 일본문화를 거부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문화 자체를 받아들이고 즐기려는 수용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은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라는 제목에서부터 잘 드러나서, 이 책은 제목만으로도 당시에 화제가 되었다.

전여옥이 ‘못 생긴’ 일본 여성으로 책을 시작하고, 이규형이 야쿠자와 우익으로 책을 시작하는 데 반하여, 김지룡은 일본 프로 야구 이야기로 책을 시작한다. 김지룡은 일본의 프로 야구계에는 가장 많은 팬을 갖고 있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팀이 중심에 위치하고, 다른 팀들은 이에 대항하는 ‘안티 자이언츠’ 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소개한다. 그렇다고 그는 한국의 프로야구계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프로야구가 ‘비정상적’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다. 오히려 주류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주니치 드래곤즈와 해태 타이거즈의 연고지 특성을 비교하고, 두 팀에서 모두 활약한 선동렬 선수를 한일간의 “기막힌 인연”이라 부르며 동질성을 찾으려 한다(27쪽).

한국과의 동질성 탐구와 더불어 김지룡은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해 갖고 있는 스테레오 타입을 깨려고 노력한다. 그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일본인만이 일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려 한다. 그 예로 일장기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에 반대하는 일본교직원노조, 미군기지 주둔 문제 때문에 일장기를 불태우는 오키나와인들이 등장한다. 또한 그는 “왜색 패션이란 것은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허상의 개념”이라고 지적하고(42쪽), “일본대중문화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가”라고 묻기도 한다(221쪽). 더 나아가 김지룡은 비판의 화살을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려, 한국의 일본문화 표절을 문제 삼는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이규형의 『일본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를 거론하면서, 이 책에서 소개한 사업 중에 그 후에 한국에서 통용된 것이 과연 있느냐며, 문화적 이해 없이 “피상적인 관찰결과를 기술한” “잘못된” 서적이라고 비판한다(243쪽).

전여옥, 이규형이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선입견을 굳건히 해줌으로써 독자에게 안도감을 주었다면, 김지룡은 그것을 뒤흔들고 오히려 한국인을 비판한다. 또한 전여옥과 이규형의 책에서는 일본문화가 몰려온다는 위기감이 없었으나, 1998년 일본대중문화 개방 바로 전에 나온 김지룡의 책에서는 그러한 위기감이 잘 드러난다. 그뿐 아니라 당시 대중이 갖고 있던 일본문화에 대한 두려움 섞인 호기심을 김지룡은 잘 읽어내어 책에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대중음악 등 개방을 앞둔 일본대중문화를 단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이러한 일본문화가 어느 정도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적으로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일본문화가 들어오면 우리의 관련 산업은 날벼락을 맞을 것이라면서 엄살만 떨”지 말고, “좁은 한국 시장에서 이등바등하지 말고 세계 시장을 상대”할 것을 주장한다(242쪽).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독자에게는 ‘실체 없는 자부심’으로 들렸을지 모르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이후 한류를 통한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예언한 것처럼 읽힌다.

그렇다고 김지룡이 처음부터 이러한 ‘해안’을 지녔던 것 같지는 않다. 보통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가 데뷔작으로 소개되지만, 사실 1년 전인 1997년 그는 『비상구 없는 일본의 에로스』(시사플러스)라는 책을 써낸 적이 있다.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선정적인 소개만으로 뭉쳐져, 여고생과 유부녀의 매춘, 마약과 청소년, 도박적인 섹스산업 등 일본의 극단적인 성문화를 정리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동경은 도시 전체가 매춘을 한다”는 표현부터 시작하여, “전국민이 정신병이라도 앓는 것처럼 말세를 향해 질주하는 일본 사회. 윤리나 도덕은 이미 브레이크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며 범조차 그들 앞에서는 스스로의 왜소함에 어깨를 떨구고 있을 뿐”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10년은 뒤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다행히도 한국은 아직까지도 일본 사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말한다(11쪽). 이처럼 일본을 비하하고 한국 독자를 도덕적 우위에 서게 하려는 김지룡의 자세는 전여옥과 닮아 있다.

또한 이규형의 저서처럼 『비상구 없는 일본의 에로스』는 욕망이 넘쳐흐르는 ‘선정적인’ 일본을 알고 싶어 하는 한국 독자들의 호기심에 답한다. 따라서 이 책에는 일본의 매춘산업과 성풍속에 관한 선정적인 사진과 자세한 정보가 가득하다. 하지만 이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김지룡은 일본문화에 대한 접근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이 다음해에 나온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이다. 이러한 김지룡의 변신은 더 이상 일본문화를 비하하고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당시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즉 이는 근본적으로는 한국 대중의 변화이기도 하였다.

## 5. 나가며

10여 년 전의 일본문화론에 대한 서적을 다시 들춰보며 일본의 변화보다는 한국의 변화가 큼을 느꼈다. 역시 '일본은 없구나'라고 감동하기보다는 당시 한국에는 이런 것도 없었구나라는 점을 더욱 많이 찾아낼 수 있었고,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발전의 시간차에서 오는 유무를 문화적 차이로 인식하여, 한국에 없음을 안심하고 안도하는 식의 서술이 많았음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1998년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기점으로 한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세계에 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일본여행비자가 없어지고 한일간의 인적교류는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또한 일본문화산업의 한국 '침략'은 기우에 불과했고, 개방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한국문화산업이 일본에 진출하는 한류를 경험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소설이 언제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몇 권씩 들어 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일본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도 꾸준히 만들어진다. 과거사나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의 긴장이 고조되어도 이러한 한일대중의 서로간의 문화소비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동 투자, 배우와 제작진의 교류, 원작의 교류 등으로 일본문화와 한국문화를 딱 잘라 구분해 낼 수 없는 영역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1990년대에 유행했던 일방적인 일본문화 부정이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일본에 대한 욕망을 책을 통하여 언어내려는 수요는 그 효용을 다했다 할 수 있다. 『국화와 칼』이나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계속해서 판을 거듭하며 출판되고 읽히고 있는 것과 달리, 앞에서 거론한 세 저자의 책들이 대부분 절판되었음도 그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하지만 세 저자들이 갖고 있던, 또는 이용했던 한국 대중들의 일본인식의 틀은 계속 찾아 볼 수 있다. 주로 인터넷 세상에서 한국과 일본만을 대립시켜 일본이 우리와 다른 경우, 그것을 그대로 우열로 인식하는 글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글들이 주는 쾌락은 계속되겠지만, 그만큼 균형 잡힌 일본 이해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 안 될 것이다.